

# 광양매실, 스위스 제약회사에 수출

시, 오늘 '스트라젠'과 업무협약 체결  
연간 80~100t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

광양매실이 스위스 제약회사에 판매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매실산업의 발전과 매실식품의 국내의 판로 확대를 위해 11일 시청에서 정현복 시장과 잔드라드 스트라젠 대표, 빛그린매실사업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약회사인 '스트라젠'사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시와 스트라젠사는 매실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추진, 매실식품 개발 및 기능성에 관한 정보교류, 매실식품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등 매실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라젠사는 의약품을 비롯해 매실식품 등 건강 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연매출 1500억원의 제약회사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10여 개국에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60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스트라젠사는 매실에서 매실 제품 등을 추출하고 난 과육으로 간 기능 개선 및 보호를 위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조·판매하게 되며 연간 광양매실 과육 80~100t(생매 1400t)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트라젠사는 2회에 걸쳐 광양매실과 육을 이용, 간기능성 식품을 제조를 테스트 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실은 국내에서는 매실청, 매실쥬스, 매실음료 등 주로 식품과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 식초 소스

등의 원료로 판매되고 있으며 외국에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판매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시는 업무협약에 체결되면 빛그린매실사업단과 스트라젠사간에 매실부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스위스에 수출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실의 기능성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인식 제고는 물론, 매실식품의 소비확대로 이어져 매실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실 주산지인 광양은 국내 매실 생산량의 25%(9000t)를 생산하고 있으며, 4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로봇산업 선도도시 육성 총력

정책간담회 열고 특구 지정 추진

광양시가 로봇 산업 선도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공실에서 로봇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민선 7기 미래도시 공약사항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장을 비롯한 김재경 광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부위원장과 서울과학기술대 김동환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이근호 박사, (주)인공지능과 사람들 김승진 대표 및 일본 MITSUBI SEIKI사 관계자 등 17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내외 로봇 산업 동향 및 광양시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로봇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등 광양시 로봇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의료 복지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로

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로봇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로봇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다"며 "웨어러블 로봇 및 무인 탐사 로봇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앞으로 광양시가 로봇산업의 선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제철초 협력 어린이 돌봄센터 개소

광양시와 광양제철초등학교가 협력해 만든 어린이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실 두 칸을 제공하고 시가 구조변경 비용을 지원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마로니에 돌봄센터'가 최근 개소했다. <사진>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곳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받게 된다.  
돌봄센터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주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돌봄센터는 앞으로 오후 7시까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교사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보살핌을 제공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실버마크 제작 보급

광양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 <사진>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실버마크들이 전국적으로 혼재돼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표준안인 통일된 실버마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보급하는 스마일 실버는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두 종류로 제작돼 세트 로 지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 등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마크는 운전자 및 관련기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또 차량 뒤쪽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리

터는 남녀 고령자의 모습과 '한 번 더 배려와 양보를 한다'는 심포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양보와 배려·소통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실버마크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의 차량이 배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경찰, 범죄예방 위해 빈집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광양시 관내 빈집(공-폐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이번 점검은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대진단(4월 19일까지)과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해당구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폐가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관계기관과 소유자에게 권유할 예정이다.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범죄예방과 범죄는닉처가 될 수 있는 공-폐가를 지속적 점검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고 먹고 즐기는 '오감 힐링' 광양매화축제 오세요



광양숯불구이



섬진강 채첩무침

광양시는 17일까지 열리는 '제21회 광양매화축제'가 보고, 먹고, 찍고, 즐기는 '오감 힐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열흘간 열리는 광양매화축제장 일원은 축제를 열기도 전에 꽃의 향연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더하고 있다.  
광양에는 3월 한 달 인산인해를 이루는 매화마을만 있는 건 아니다.  
광양 먹거리의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맛 이상의 역사, 문화, 인문이 담겨져 있다. 여행지의 기억은 곧 그곳에서 맛본 음식과 연결되는 만큼 광양의 먹거리를 즐기고 가길 권한다.  
산과 강과 바다를 두루 갖춘 자연환경과 일조량이 가장 많은 천혜의 땅에는 광양불고기, 닭살불구이, 숯불장어구이, 섬진강 붓굴, 백운산 고로쇠, 섬진강 채첩, 광양 기정떡 등 다른 지역에선 맛 볼 수 없는 특화된 음식들이 풍부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4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붓굴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일반 굴보다 10배나 큰 자연산 붓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진강 하류에서만 채취되는데 특히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광양 망덕포구의 붓굴은 '섬진강 채첩'과 함께 해마다 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다.  
진정한 광양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광양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얇게 저민 소고기를 청동화로에 참숯으로 구워 먹는 광양불고기와 잘 손질한 토종닭을 숯불에 구워 담백한 닭살불구이, 숯불 장어구이 등 맛집 탐방이 여행의 주목적이기도 한 트랜드에 걸맞은 특별한 선택이 될 것이다.  
또 매화축제장 곳곳에 '올해 첫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1인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등 한층 스마트하고 젊어진 축제를 마련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 뷰티풀 코란도 탄생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9인치 AVN | 인피니티 무드램프

LED 리어램프

코란도 \*2WD 수동 6단: 배합 14.5km/l | 도심주행 13.6km/l, 고속도로 15.8km/l | 1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25kg | CO2배출량: 130g/km | 2WD 자동 6단: 배합 14.3km/l | 도심주행 13.2km/l, 고속도로 15.5km/l | 1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35kg | CO2배출량: 134g/km | 2WD 자동 6단: 배합 13.3km/l | 도심주행 12.3km/l, 고속도로 14.9km/l | 1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640kg | CO2배출량: 145g/km | 3일 할 \*본 연비는 코란도에 의한 것만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바랍니다.**

<b>구입 문의</b>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 광 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윤암 573-8900
	•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 천 745-3666 여 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 양 791-0071 나주혁신 331-1500
	• 화 순 371-3555 장 흥 863-2600 나 주 334-2727 영 암 473-3456 광 진 433-3100 해 남 537-3100 장 성 395-0007
	• 담 양 383-5811 완 도 554-4545 영 광 353-9500 보 성 852-2892 서 광 양 761-8900 무 안 454-0099 고 흥 835-5050
	• 진 도 542-5888 할 평 324-3800 여수구룡 642-1400 구 례 782-9300